

디지털 자본의 형성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for the Formation of Digital Capital

이 승 민 (Seungmin Lee)*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 방법 | |

초록

본 연구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축적되는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을 디지털 접근과 디지털 역량으로 구분하고,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참여와 정보서비스의 이용, 디지털 장서의 이용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자본 형성과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장서 이용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이나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협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디지털 자본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식정보의 제공 역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categorizes the factors of digital capital accumulated both in personal and social level into digital access and digital competence, and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use of public libraries effects on the formation of digital capita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in public library programs, the use of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utilization of digital collections had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and accumulation of digital capital at the personal and social level. In contrast, it was analyzed that the use of digital collections in public librari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creation of digital contents or reciprocal collaboration based on online networks. Therefore, in order for public libraries to fully support the formation of digital capital, they should not only provide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is a traditional role of public libraries, but also play a role as a digital-based cooperative system.

키워드: 사회적 자본,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본, 디지털 접근, 디지털 역량

Societal Capital, Public Library, Digital Capital, Digital Access, Digital Competence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 ISNI 0000 0004 6418 7521)
논문접수일자: 2021년 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2월 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21-540,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1.521>

1. 서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여러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또한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 및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ICT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잠재력은 인적자본, 사회자본 등을 거쳐 하나의 자본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개념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디지털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왔다.

디지털 자본의 개념이 발생한 초창기에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혹은 디지털 제품 개발을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자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Tapscott, Ticoll and Lowy 2000). 하지만 디지털 자본은 단순히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혹은 디지털 정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개념이며, 여러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디지털적인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이 디지털 자본 형성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디지털 자본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이나 디지털 정보의 활용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 통해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디지털 자본과 관련된 논의들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디지털 자본의 개념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기제로서의 디지털 자본의 의미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정보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디지털 자본 형성이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이 향후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데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사회정보학적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자본의 개념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물적 자본은 사회의 전체적인 진화와 함께 사회자본, 정보자본 등으로 대체되어 왔다. 즉,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된 원동력이 무형의 질적인 자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적인 자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환경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방석현, 이경전 2003, 2). 이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진화와 함께 계

속적으로 확장, 분화되어 왔으며, 기존 사회적 자본들의 디지털적인 측면에 집중한 새로운 자본으로 디지털 자본(digital capital)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 디지털 자본은 인적자본, 물적자본, 사회자본 등 기존의 사회적 자본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자본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하지만 디지털 자본은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 아니다. 이는 다른 사회적 자본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사회적 자본, 특히 정보자원과 밀접하게 연계된 혹은 이들로부터 파생된 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자본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연구에서는 디지털 자본의 개념을 다른 사회적 자본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반면(Emmison and Frow 1998), 디지털 자본이 기존의 사회적 자본과는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Morgan 2010).

이러한 논란 가운데, 디지털 자본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본은 내면화된 일련의 능력과 적성으로 설명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및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전될 수 있는 외부화된 자원으로서의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로 정의되고 있다(Ragnedda 2018). 이는 Bourdieu의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디지털 자본으로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의 디지털적인 배경이나 경험 및 역량을 확인하는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Ragnedda, Ruiu and Addeo 2019; Ragnedda

and Ruiu 2020).

이와 유사하게, Park(2017)은 디지털 자본을 독립적인 유형의 자본으로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디지털에 대한 경험이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Schiler(2000)는 디지털 자본 대신 디지털 자본주의(digital capitalism)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Tapscott, Ticoll and Lowy(2000)는 인적자본, 고객자본, 구조적 자본이라는 지적 자본의 세 가지 형태를 상호 연계한 결과가 디지털 자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디지털 자본이 독자적인 자본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 의해서 각각의 사회적 자본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디지털 자본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개발하는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자본(Rojas et al. 2004), 정보자본(information capital)(Hamelink 2000) 및 정보적 자본(informational capital)(Priour and Savage 2013, 261-262) 등의 여러 사회적 자본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자본의 개념을 기존의 사회적 자본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자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형성 요인 가운데 디지털적인 측면을 분리하여 이를 디지털 자본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환경이 사회적 혜택을 높이고 다른 형태의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Morgan

2010; Emmison and Frow 1998).

또한 디지털 자본은 기존의 정보자본의 개념을 포괄하는 자본으로, 부가가치의 형성에 기여하는 디지털화한 자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방석현, 이경전 2003). 다만 정보자본은 경제적 유용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자본은 경제적 유용성 이외에도 디지털 자원이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 혹은 공간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자본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자본은 여러 가지 측면이 결합된 다면적인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자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가치를 연결해 주는 매개적인 자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디지털 자본은 사회적 차원에서 축적된 디지털 기술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역량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며, 디지털 자본의 본질적인 기능은 오프라인에서 생성되는 개인적, 사회적 가치가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기술에의 접근을 이용해 온라인에서의 가치 생성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매개체로 정의할 수 있다.

2.2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물적자본이 점차 사회적 자본, 정보자본 등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oisot 1998; Fountain 2000; Zuboff 1988). 이와 함께 2000년대 이후 들어 디지털 자본을 논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지만, 기존의 사회적 자본과는 달리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 자본은 정보기술 및 디지털 기술, 정보 인프라와 같은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디지털 역량, 경험, 능력 등의 개인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사람들 사이의 상호 연결,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 신뢰 등 사회적, 개인적, 문화적 특성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Ragnedda and Ruiu 2017). 또한 디지털 자본은 사회적 자본, 정보자본 등 기존의 사회적 자본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 많은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자본이 지닌 이러한 특성들은 기존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본 역시 다른 유형의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무형의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Ragnedda and Ruiu 2017; Santillana et al. 2020).

하지만 디지털 자본은 기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 가운데 디지털 기술이 작용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정보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반면, 디지털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및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본은 기존의 사회적 자본들과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디지털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매개적인 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내재화된 능력과 적성, 개인이 축적할 수 있고 ICT를 사용하여 혜택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외부화된 자원 등은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Ragnedda 2018). 또한 기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경제적 수준, 교육적 수준, 직업 등 역시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디지털 자본의 측정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사회적 자본들은 모두 사회적 자원이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획득, 학습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 가운데 하나로써의 디지털 자본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Rojas et al. 2004) 또는 디지털 활용 능력(Ignatow and Robinson 2017)을 습득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산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본이 기존의 사회적 자본들과 함께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ICT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이제는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Park 2017), 디지털 자본은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자본으로 전환되어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접근 이외에도 디지털

역량이 사람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자본의 개념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디지털 자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무형의 지적인 측면으로 인해 디지털 자본을 분석하고 계량화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자본의 형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Ragnedda and Ruiu (2020)는 디지털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Ragnedda, Ruiu and Addeo (2019)는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으로 수입,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 등을 설정하고, 이들을 변수로 하여 디지털 자본의 형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Santillana et al. (2020)은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으로 디지털 활용능력(digital literacy), 디지털 환경에의 참여(participatory culture)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Rojas et al. 2012; Ignatow and Robinson 2017). 이들 연구는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해서 디지털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 자본의 요소를 디지털 접근과 디지털 역량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접근은 디지털 기기의 보유, 인터넷 접속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인터넷 접속 환경 구축의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정보활

용능력,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디지털 콘텐츠 생산 여부, 디지털을 이용한 문제 해결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2.4 디지털 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본은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환경이 정착함과 함께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자 사회적 자본이다. 디지털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형성의 정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까지는 많이 수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본은 기존의 사회적 자본 가운데 무형의 자본인 사회자본, 정보자본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과 정보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급 도서관은 정보의 수집이나 저장에서 정보의 활용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는 급속하게 진화하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 보다 집중을 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정보활동, 평생학습,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 및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IFLA/UNESCO 1994). 즉,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정보자원의 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에 효율적이고 평등하

게 접근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디지털 시대에 더욱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Ragnedda and Muschert 2013). 이러한 진화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 이외에도, 정보환경의 디지털화와 함께 공공도서관은 시민 참여, 정보문해력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McShane 2011).

이러한 측면들은 모두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인하고 있으며(이승민 2018a; 이승민 2018b; Vaarheim 2009),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정보적, 문화적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본과 관련된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축적되는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들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이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변수 설정

디지털 자본은 기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요인들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형성이 되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설정한 디지털 접근과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본의 개인적, 사회적 형성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전에 수행된 연구들로부터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크게 디지털 접근 및 디지털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Ragnedda, Ruiu and Addeo(2019)가 개발한 디지털 자본 지표를 활용하였다.

디지털 접근(digital access)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경험 및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설비 활용(Van Deursen and Van Dijk 2019), 네트워크 연결 정도(Riddlesden and Singleton 2016), 디지털 활동 지원환경(Ruiu and Ragnedda 2017), 온라인 상태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시간(Hargittai 2010)으로 구성된다. 이들 요소는 오랜 기간에 걸친 디지털 자본의 축적을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은 개인의 내재화된 디지털 능력에 중점을 두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The European Digital Competence Framework for Citizens(Carretero, Vuorikari and Punie 2017)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즉, 정보 및 데이터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디지털 콘텐츠 생성, 온라인을 통한 문제 해결 등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공공도서관 측면에서는,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관련된 측면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변수는 공공도서관의 여러 가지 기능 및 정보 서비스 가운데 디지털과 관련된 측면으로 한정하였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 정도,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 활용 정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공공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디지털 자본 역시 하나의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특성을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설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자본이 유발하는 사회적 격차와 관련된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디지털 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측면만을 변수 설정에 반영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항목은 앞서 언급한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한 변수에 따라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20대 이상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총 30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5부를 제외

한 295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디지털 자본의 형성 및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 및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 사이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분석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들이 디지털 자본 형성의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 참조).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한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외한 총 12개 항목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0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일관성이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 결과

4.1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설문 응답자는 남성 115명(39.0%), 여성 180명(61.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30대 104명(35.3%), 20대 87명(29.5%)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졸업이 156명(5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계수입은 설문 응답자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1〉 설문항목 구성

구분	측정항목	설문문항 수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4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4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 이용	
디지털 접근	디지털 설비 활용	4
	네트워크 연결	
	디지털 이용 환경	
	정보 및 데이터 활용 정도	
디지털 역량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정도	4
	온라인 협업 정도	
	디지털 콘텐츠 생성	
	온라인을 이용한 문제해결	

〈표 2〉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15	39.0
	여성	180	61.0
계		295	100.0
연령	20대	87	29.5
	30대	104	35.3
	40대	67	22.7
	50대	30	10.2
	60대 이상	7	2.4
계		295	100.0
학력	고졸	56	19.0
	전문대졸	41	13.9
	대학 재학	29	9.8
	대졸	156	52.9
	석사	10	3.4
	박사 이상	3	1.0
계		295	100.0
연 평균 가계수입	2,000만원 이하	48	16.3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93	31.5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77	26.1
	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51	17.3
	8,000만원 이상	26	8.8
계		295	100.0

4.2 디지털 자본 형성 요인과 공공도서관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공공도서관은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정보적 기관이다. 또한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정보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 지적자본 등과 같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무형의 자본을 형성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사회적 자본들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무형의 자본인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과 공공도서관의 이용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디지털 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을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측면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들 이용 요인과 디지털 자본 형성의 요인 사이의 관계를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3〉 참조).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이용

〈표 3〉 디지털 자본 형성 요인과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디지털 이용 환경	디지털 설비 이용	네트워크 연결	온라인 정보 이용	온라인 협업	온라인 커뮤니케 이션	디지털 콘텐츠 생성	온라인을 통한 문제 해결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Pearson 상관	.307**	.093	.033	.370**	.344**	.358**	.275**	.307**
	유의확률 (양측)	.000	.110	.569	.000	.000	.000	.000	.000
	N	295	295	295	295	295	295	295	295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Pearson 상관	.326**	.193**	-.058	.374**	.304**	.466**	.512**	.363**
	유의확률 (양측)	.000	.001	.317	.000	.000	.000	.000	.000
	N	295	295	295	295	295	295	295	295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	Pearson 상관	.419**	.027	.070	.514**	.570**	.373**	.305**	.370**
	유의확률 (양측)	.000	.639	.233	.000	.000	.000	.000	.000
	N	295	295	295	295	295	295	295	295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 이용	Pearson 상관	.341**	.219**	.057	.317**	.330**	.420**	.434**	.35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325	.000	.000	.000	.000	.000
	N	295	295	295	295	295	295	295	295

** $p < .01$

요인들은 모든 디지털 역량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 < .01$). 디지털 접근과 관련된 요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이용 환경 요인이 모든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유의미한 정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p < .01$), 네트워크 연결 정도는 모든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 보면,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정보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활동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람들이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활동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이나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도 무선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환경이 정착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설비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디지털 기기는 디지털 접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개인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익숙도와 직결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설비의 이용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용($r = .193, p < .01$) 및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장서 이용($r = .219, p < .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기기의 이용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친밀도와 공공도서관 이용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람들의 디지털 자본 형성의 대부분의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의 요인들이 디지털 자본 형성의 요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기 위해 이들 요인들 사이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4.3 디지털 접근과 공공도서관 이용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인 디지털 접근이나 디지털 역량은 세부적인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정보적, 사회적 기능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접근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4.3.1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디지털 이용 환경

디지털 접근을 형성하는 요인 가운데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데 공공도서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이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4.627, p<.01$). 또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참여($t=2.016, p<.05$)와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의 이용($t=2.406, p<.05$) 역시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사람들의 디지털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줄 수 있고 디지털 환경에의 접근 및 이의 이용에 대한 장벽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장서의 이용 역시 전통적인 인쇄 기반의 정보자원 이외에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 줌으로써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표 4>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디지털 이용 환경 사이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1.976	.169		11.661	.000
1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15	.045	.023	.346	.730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090	.044	.125	2.016	.045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	.260	.056	.292	4.627	.000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 이용	.107	.044	.152	2.406	.017

a. 종속변수: 디지털 이용 환경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들은 점차 디지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사람들의 디지털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

4.3.2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디지털 설비 이용

사람들의 디지털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설비의 활용이 필수적인 조건이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역시 디지털 자본 형성에 있어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디지털 시설 및 설비를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디지털 설비 이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5〉 참조).

분석 결과, 공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의 참여($t=2.309, p<.05$)와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의 이용($t=2.979, p<.01$)은 사람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설, 설비의 이용 환경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공공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설비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지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자본 형성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및 접근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디지털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3.3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온라인 정보 이용

사람들의 디지털 자본 형성은 정보자본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온라인 정보의 이용은 사람들의 디지털 자본 형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공공도서관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은 양질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해 주는 정보적, 사회적 기관이며, 전통적인 인쇄 기반의 정보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의 정보까지도 포괄

〈표 5〉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디지털 설비 이용 사이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2.325	.317		7.331	.000
1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26	.083	-.022	-.308	.758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192	.083	.156	2.309	.022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	-.169	.105	-.111	-1.610	.108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 이용	.248	.083	.206	2.979	.003

a. 종속변수: 디지털 설비 이용

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의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이 사람들의 온라인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t=2.673, p<.01$)와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이용($t=6.560, p<.01$)은 사람들의 온라인 정보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식이 아니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며, 인쇄 형태 및 디지털 형태의 정보자원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이용을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이를 통한 온라인 정보 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람들의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접근을 확보하는데 있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 역시 사람들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및 온라인 정보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장서의 이용은 디지털 이용 환경에 대한 접근이나 디지털 기기의 이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람들이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디지털 역량과 공공도서관 이용

디지털 역량은 개인의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 반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본의 형성을 위한 개인의 디지털 역량은 단순히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익숙함이나 이용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디지털 환경을 통한 사회적, 정보적 활동의 수행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측면에서의

<표 6>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온라인 정보 이용 사이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1.414	.184		7.674	.000
1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55	.048	.071	1.127	.261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129	.048	.157	2.673	.008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	.401	.061	.392	6.560	.000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 이용	.039	.048	.048	.806	.421

a. 종속변수: 온라인 정보 이용

기능이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디지털 자본 형성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4.4.1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온라인 협업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활동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결국 온라인 상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정보의 교환, 의견의 공유, 문제 해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이 사람들의 온라인 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7〉 참조).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8.685, p<.01$). 반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나 디지털 장서의 이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상호간에 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정보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4.2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사람들 사이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기반이 되는 것이며, 현재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이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8〉 참조).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은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t=4.923, p<.01$), 이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이용이 지식정보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뛰어넘어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7〉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온라인 협업 사이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1.729	.152		11.398	.000
1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10	.040	.015	.239	.811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031	.040	.044	.775	.439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	.436	.050	.506	8.685	.000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 이용	.064	.040	.093	1.598	.111

a. 종속변수: 온라인 협업

〈표 8〉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1.236	.205		6.024	.000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44	.054	.051	.811	.418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265	.054	.291	4.923	.000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	.159	.068	.141	2.335	.020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 이용	.183	.054	.204	3.393	.001

a. 종속변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4.4.3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디지털 콘텐츠 생성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사람들 사이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 정보의 소비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측면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디지털 자본을 고려하면,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무형의 자본 생성 및 축적이라는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이 개인의 디지털 콘텐츠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9〉 참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참여($t=6.860, p<.01$)와 디지털 장서의 이용($t=4.396, p<.01$)은 사람들의 디지털 콘텐츠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이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 활동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디지털 장서의 이용은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9〉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디지털 콘텐츠 생성 사이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546	.228		2.391	.017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68	.060	-.071	-1.135	.257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410	.060	.398	6.860	.000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	.088	.076	.069	1.164	.245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 이용	.263	.060	.260	4.396	.000

a. 종속변수: 디지털 콘텐츠 생성

4.4.4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온라인을 통한 문제 해결

디지털 기반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정보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지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정보요구의 충족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의 정보요구 충족 혹은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10> 참조).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들의 정보요구 충족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공도서관이 수행해 온 사회적, 정보적 역할이며, 디지털 중심 혹은 데이터 중심으로의 사회의 전반적인 전환이라는 상황에서도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가 진화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요구를 지니게 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양질의 정보

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근본적인 사명이자 역할인 사람들의 정보요구 충족 및 정보에 기반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적,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자본, 정보자본 등과 같은 기존의 사회적 자본 이외에 디지털 자본의 형성을 이끌어 왔다. 디지털 자본은 디지털 기술, 정보 인프라와 같은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디지털 역량, 경험, 능력 등의 개인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무형의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자본은 기존의 사회적 자본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역시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과 온라인을 통한 문제 해결 사이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1.598	.192		8.304	.000
1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23	.051	.030	.452	.651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150	.050	.185	2.976	.003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	.206	.064	.205	3.234	.001
공공도서관 디지털 장서 이용	.138	.050	.173	2.729	.007

a. 종속변수: 온라인을 통한 문제 해결

하지만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자본의 개념 정립이나 디지털 자본의 요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축적되는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들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이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본 형성 요인을 크게 디지털 접근과 디지털 역량으로 구분하고, 이들 형성 요인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접근 및 이용 환경은 개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람들의 디지털 자본 형성의 대부분의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접근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자본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접근을 확보하는데 있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기반 정보서비스는 사람들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및 온라인 정보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장서 이용 역시 디지털 이용 환경에 대한 접근이나 디지털 기기의 이용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람들이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디지털 역량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의 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입수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사람들 사이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디지털 기반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참여와 정보서비스의 이용, 디지털 장서의 이용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자본 형성과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해 주는 것과는 달리, 지식정보의 제공이나 이의 활용은 사람들의 온라인 정보 이용을 지원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디지털 기반의 정보 활용 및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사회의 주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자본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전통적인 지식정보의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협력체계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방석현, 이경진. 2003. 국가 전략 차원에서 디지털 자본의 정의와 역할. 『행정논총』, 41(3): 1-23.
- [2] 이승민. 2018a.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정보공유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27-49.
- [3] 이승민. 2018b.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 기제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139-160.
- [4] Boisot, Max. 1998. *Knowledge Assets: Secur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Information Econom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5] Carretero, Stephanie, Vuorikari, Riina and Punie, Yves. 2017. *The Digital Competence Framework for Citizens*. Luxembourg: European Union.
- [6] Emmison, Michael and Frow, John. 1998. "Information Technology as Cultural Capital." *Australian Universities' Review*, 41(1): 41-45.
- [7] Fountain, Jane. 2000. "Constructing the Information Society: Women,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sign." *Technology in Society*, 22: 45-62.
- [8] Hamelink, Cees J. 2000. *The Ethics of Cyberspace*. London: Sage.
- [9] Hargittai, Exzter. 2010. "Digital Na(t)ives? Variation in Internet Skills and Uses among Members of the 'net generation'." *Sociological Inquiry*, 80(1): 92-113.
- [10] IFLA/UNESCO. 1994. The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online] [cited 2020. 1. 6.] <<https://www.ifla.org/publications/iflaunesco-public-library-manifesto-1994>>
- [11] Ignatow, Gabe and Robinson, Laura. 2017. "Pierre Bourdieu: Theorizing the Digital."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7): 950-966.
- [12] McShane, Ian. 2011. "Public Libraries, Digital Literacy and Participatory Culture."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32(3): 383-397.
- [13] Morgan, Brian. 2010. "New Literacies in the Classroom: Digital Capital, Student Identity, and Third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Knowledge & Society*, 6(2): 221-239.
- [14] Park, Sora. 2017. *Digital Capital*. London: Palgrave.

- [15] Prieur, Anick and Savage, Mike. 2013. "Emerging Forms of Cultural Capital." *European Societies*, 15(2): 246-267.
- [16] Ragnedda, Massimo. 2018. "Conceptualizing Digital Capital." *Telematics and Informatics*, 35(8): 2366-2375.
- [17] Ragnedda, Massimo and Muschert, Glenn W. eds. 2013. *The Digital Divide: The Internet and Social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London, UK: Routledge.
- [18] Ragnedda, Massimo and Ruiiu, Maria Laura. 2017. "Social Capital and the Three Levels of Digital Divide. In Ragnedda, Massimo and Muschert, Glenn W. eds. 2017." *Theorizing Digital Divides*, Routledge, 21-34.
- [19] Ragnedda, Massimo and Ruiiu, Maria Laura. 2020. *Digital Capital: A Bourdieusian Perspective on the Digital Divide*. Bingley: Emerald Publishing.
- [20] Ragnedda, Massimo, Ruiiu, Maria Laura and Addeo, Felice. 2019. "Measuring Digital Capital: An Empirical Investigation." *New Media & Society*, 22(5): 793-816.
- [21] Riddlesden, Dean and Singleton, Alex D. 2016. "Broadband Speed Equity: A New Digital Divide?" *Applied Geography*, 52: 25-33.
- [22] Rojas, Viviana et al. 2004. Beyond Access: Cultural Capital and the Roots of the Digital Divide. In Erik P. Bucy and John E. Newhagen ed. *Media Access: Soci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of New Technology Us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07-130.
- [23] Ruiiu, Maria Laura and Ragnedda, Massimo. 2017. "The Quadruple Helix Model of Libraries: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Newcastle upon Tyne." *Public Library Quarterly*, 36(4): 349-366.
- [24] Ruiiu, Maria Laura and Ragnedda, Massimo. 2020. "Digital Capital and Online Activiti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econd Level of Digital Divide." *First Monday*, 25(7). [online] [cited 2021. 1. 5.] <<https://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download/10855/9568>>
- [25] Santillana, Melissa et al. 2020. "Digital Inequalities: Homework and Techno-Capital in Austin, Texas." *First Monday*, 25(7). [online] [cited 2020. 12. 27.] <<https://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download/10860/9569>>
- [26] Schiller, Dan. 2000. *Digital Capitalism: Networking the Global Market Systems*. Cambridge, MA: MIT Press.
- [27] Tapscott, Don, Ticoll, David and Lowy, Alex. 2000. *Digital Capital: Harnessing the Power of Business Webs*.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28] Van Deursen, Alexander JAM and Van Dijk Jan AGM. 2019. "The First-Level Digital Divide Shifts from Inequalities in Physical Access to Inequalities in Material Access." *New*

Media & Society, 21(2): 354-375.

- [29] Zuboff, Shoshana. 1988.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The Future of Work and Power*. New York, NY: Basic Book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Phang, Suk-Hyun and Lee, Kyoung-Jun, 2003. "Definition and Roles of Digital Capital in National Strateg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1(3): 1-23.
- [2] Lee, Seungmin, 2018a. "Effect of Public Library-Mediated Information Sharing on the Construction of Social Capital."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4): 27-49.
- [3] Lee, Seungmin, 2018b.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as a Construction Mechanism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4): 139-160.